

# 中國 『二十四孝』와 『三綱行實圖』에 나타난 孝 관련 도상서사 연구\*

조정래\*\*

## <目 次>

1. 효의 기원과 발전
2. 『효행록』의 “이십사효”와 『삼강행실도』의 출간
3. 『삼강행실도』의 효 관련 서사와 도상의 조형성
4. 『삼강행실도』의 매체성과 서사의 사회성

## 1. 효의 기원과 발전

효는 동양의 전통적 미덕으로 유가적 윤리사상을 토대로 한 가정관계를 유지하는 도덕규범이다. 효(孝)라는 문자는 상나라 갑골문자(甲骨卜辭)에 처음 등장하며, 老와 子의 합성어이다. 늙을 노(老)자에서 지팡이(匕) 대신 자식(子)이 지탱 즉, 늙으신 부모를 자식이 받들어 모시는 형상이다. 초기의 효의 관념은 추효(追孝), 효형(孝亨), 효제(孝祭)라는 단어에서 보이듯 죽은 부모나 조상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소박한 정감<sup>1)</sup>으로, 현대적 봉양의 의미는 아니었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유가의 윤리사상이 발전하면서 제사적 의미가 간략화되고 가정의 형식이 점차 확립되면서 부모봉양이 혈친관계의 기본적 의무가 되었다. 동한시

\* 이 연구는 2014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140423)와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비(NRF-2013S1A5A2A0304545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1) 李裕民, 「殷周金文中的“孝”和孔子“孝道”的反動本質」, 『考古學報』,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4年, 21쪽.

대 허신(許慎)이 편집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며, 늙음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며, 아들이 늙은 부모를 잇는 것이다.”<sup>2)</sup>라고 적고 있다. 공자, 맹자, 증자 등 유학자는 효 문화를 더욱 이론화시켰으며, 인(仁)이라는 사상을 제창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善事父母)이 효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공자는 가장 큰 효는 부모를 공경하며 받드는 것(敬奉)이라 생각하였다.

한대에 이르러 효는 정치적 성격으로 발전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손함(孝悌)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治國平天下) 출발점으로 보았다.<sup>3)</sup> 이러한 효는 봉건사회 가장의 전제정치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대표적 유학자 동중서(董仲舒)는 효와 충을 연결하여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선진시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관념을 절대화시켰으며, 부모의 자애(慈愛)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여, 직접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효에 대한 극단화 경향을 낳았다. 이는 그의 삼강(三綱)사상 즉, 임금의 신하의 근본(君爲臣綱)이며,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父爲子綱)이고, 남편은 부인의 근본(夫爲婦綱)이라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귀결되었다. 당시 통치계급은 그의 모든 학파를 물리치고, 유가의 학술만을 존중하자(罷黜百家, 獨尊儒術)는 주장을 견지하였다. 공자와 맹자의 효 사상을 바탕으로 기술한 『효경』(孝經)은 유교적인 효의 집약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암송하게 하여, 교화수단으로 삼았다. 『효경』에서는 효는 덕의 근본이며, 모든 덕행은 효를 위한 것이고, 정치적 지위나 신분적 차이에 의해 실천하는 효의 내용과 가치도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위진시대에는 비록 유가사상이 위축되었지만 통치수단으로서 효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효경 연구와 더불어 비인륜적이며 지나친 성격의 효를 포함한 사례(郭巨埋兒, 唐媳乳母, 臥冰求鯉)를 전파하여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효 개념의 이화는 효감(孝感)과 효의(孝義)로 확대되어, 효는 하늘도 감동시키는 반면 불효는 귀신의 징벌도 함께 한다는 미신적이며, 우매하고 절대화된 개념으로

2) “孝, 善事父母者, 從老省, 從子承老也” 許慎, 『說文解字』, 中華書局, 1963年, 173쪽.

3) “夫國以簡賢爲務, 賢以孝行爲首。孔子曰: 事親孝故忠可移於君, 是以求忠臣必於孝子之門。” 范曄撰, 『後漢書·韋彪傳』卷26, 冊文書局, 1973年, 917-918쪽.

변질되어 통치의 한 방편이 되었다. 또한, 『위서효감전』(魏書孝感傳)을 시작으로 『진서효우편』(晉書孝友篇) 등 “효감” 혹은 “효행담” 관련 이야기들이 불교의 효사상을 보여주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sup>4)</sup>과 함께 유행하면서, 정사에 광범위하게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백화백효도>(白話百孝圖)에는 순(舜)임금에 관한 효감동천(孝感動天), 맹종(孟宗)의 「곡죽생순」(哭竹生筍) 외에 명대 팽굉재(彭宏才) 이야기 근원이 되는 「할간구모」(割肝救母), 유검루(庾黔婁)의 「상분우심」(嘗糞憂心) 등 비인격적인 내용들도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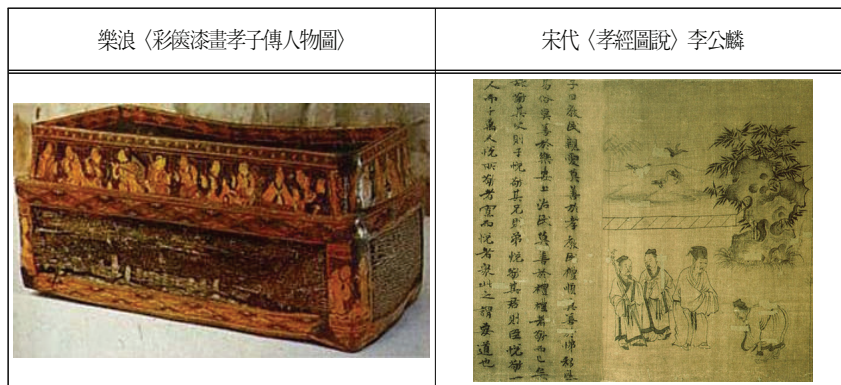


그림 1. 고대 “효 관련” 도상

당송이후 효의 특징은 “이효우충(移孝于忠)”으로 나타나고, 충군존왕(忠君尊王)의 개념으로 해석되어 통치수단으로서 신하의 충성(臣忠)과 자녀의 효(子孝)를 강조하였다. 반면 군명(君明)과 부자(父慈)의 개념은 퇴보하였다. 대신 군위신강과 부위자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심지어 임금이나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 신하나 자녀는 죽지 않을 수 없으며(君叫臣死臣不得不死, 父叫子亡子不得不亡),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못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父雖不父子不可以不子)는 우매한 효의 원칙은 봉건적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화된

4) 효를 비롯한 세간의 윤리도덕은 불교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효가 지배하는 중국 사회에 불교를 전파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효를 불교의 입장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은중경』이라는 위경(偽經)의 형태로 나타났다.

기강이 되었다. 이처럼 충군존왕의 효는 흡입력이 강했으며, 통치계급은 백성을 교화시켜 충효도덕을 실천하게 하는 한편, 신하와 백성의 군주에 대한 의무를 절대화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군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한편, 훌륭한 효행 인물들의 덕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효행담이 독립적인 책으로 편찬된 것은 남송대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조맹견(趙孟堅)의 『조자고이십사 효서화합벽』(趙子固二十四孝書畫合璧)으로, 대표적인 24인의 효행을 도판과 함께 편찬하였다. 『이십사효』는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최종 형성되었으며, 효의 보급을 위해 여러 판본들이 널리 출판되었다.

『효경』에서부터 『이십사효』에 이르기까지 효의 근본적 취지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근본으로 극단화, 전제화, 우매화되었다. 국가는 제도나 풍속을 통해 효의 실천을 권장하거나 강제함으로써 중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덕규범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국가적인 단계에서의 효는 충이며, 이는 바로 군주에 대한 충성(忠君)으로 이어졌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위해 고려 말에 등장한 주자학적 유교 사상은 『명심보감』(明心寶鑑)과 『효행록』(孝行錄)의 출판을 통해 전파되었다. 이는 중국 『효경』, 『논어』, 『맹자』 등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 명구(名句), 고사(故事) 등을 편집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핵심적 근간은 수기치인과 충효이며 삼강오륜에 관한 설명을 함께하고 있다. 조선에 이르러 건국이념으로 채택되었고, 학문과 사상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의 생활의 실천적 행동규범으로 체계화되었다. 유교정책은 인간의 근본윤리도덕인 효를 강조하고 선양하였으며, 『소학언해』, 『삼강행실도』, 『동몽선습』, 『격몽요결』 등이 발간되어 생활화하도록 전국적으로 장려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효경』이 『소학』보다 추상적이며 관념적이어서 유교의 제반규범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소 희석되었지만 유교의 필수 교양서로서 전통적인 경전의 위치는 유지하였다.

## 2. 『효행록』의 “이십사효”와 『삼강행실도』의 출간

일상생활에서 유교의 핵심덕목은 충과 효이다. 의리로 결합된 충이 국가적인 차원의 법도라면 혈연으로 맺어진 효는 개인적인 삶의 원초적인 생활윤리이다. 충은 선택적이지만 효는 필연적이며 영속적이다. 이는 인과 연결되어 도덕실천과 인격함양의 문제를 중시하였다.

유교적 국가이념을 표방하는 조선시대의 통치체제에서 유교적 가치관과 이념에 의한 국가질서의 확립과 유교적 생활규범을 백성들에게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 기본형식은 효의 규범을 기초로 하는 가족공동체의 결속이 국가나 사회체제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본목표는 개개인의 유교적 소양을 갖춘 도덕적 인간양성에서 출발하여 공동체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쳐 결국 사회 전체가 유교의 핵심적인 윤리인 효를 실천하고, 충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유교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조선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교화할 방안으로 충·효·의를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인물을 추천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서적간행과 보급을 통한 유교적 이념의 윤리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유교와 관련 명으로부터 『오륜서』(五倫書), 『효순사실』(孝順事實), 『효행록』,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이 유입 발간되었다. 특히, 세종 때에는 효제(孝悌)를 도탑게 하고 풍습정비를 위해 『효행록』,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 배포하여 백성들을 교화시키려 하였다.<sup>5)</sup> 이 책들은 유교의 기본원리들을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 소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열녀의 사적 등을 모아 놓았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유교적 전통이념을 이해하고 도덕적 수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문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기도 했으며, 특히 백성의 교화를 중요시하며 유교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기 위한 기본 도서였다. 이는 왕이 하사를 하는 방식인 반사(頒賜 혹은 內賜)제도나 지방감영에 판각을 두고 필요시 발행하는 관판본(官板本)을 통해 사대부나 사학 향교 등에 배포되었다. 또한,

5)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시대 책의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년, 35쪽.

삼강에 이륜을 보강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하여 백성 교화에 힘쓰자고 하였다. 이는 가족 윤리를 넘어 향촌사회 내의 안정된 윤리적 기반을 실현하여, 공동체 사회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며, 지배와 복종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 2. “이십사효” 관련 문헌

『효행록』은 고려 말 중국 고대의 효행고사 중 62편을 선정하여 소개한 책으로, 24편은 권준(權準)이 화공의 그림을 받고 이제현의 찬을 넣어 엮었으며, 이후 38편은 그의 아버지 권부(權溥)가 추가하였다. 후일 여기에 조선 초 권근(權近)이 평설을 달았다. 이 책은 세종에 의해 중시되어, 1428년 설순(契循) 등이 개정하여 중간(重刊)본을 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효자·충신·열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sup>6)</sup> 『효행록』의 내용은 전찬부 24효에 후찬부 38효

6) 본문에서는 1428년 설순의 중간본을 『효행록』의 간행이 아니라 『삼강행실도』라 추정함. 권준은 아버지에 대해 효자로서의 뜻과 행실을 보이기 위해 24명의 중국효자의 『효행록』을 지어 아버지께 올렸고, 이것이 지금의 『효행록』의 시초가 됨. 현존본은 1405년 권근이 간행한 것을 1600년(선조33)에 계림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윤호진, 『효행록』, 경인문화사, 2004년, 3~11쪽.

를 더한 것으로, 효자의 부모에 대한 효행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형제간의 우애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절개도 포함되어 있다. 전찬부의 구성은 중국의 『이십사효』(二十四孝)와 관련이 깊으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삼강행실도』의 〈효자도〉에 모두 소개되어 있다.

책의 근간이 되는 『이십사효』는 『전상이십사효시선』(全相二十四孝詩選)라고도 하며, 중국 원대(元代) 곽거경(郭居敬)이 편집한 유교의 이념인 효를 권장하고 선양하기 위한 통속적인 동몽서(童蒙書)이다.<sup>7)</sup> 이는 서한의 유향(劉向)이 편집한 『효자전』(孝子傳)이나 당대 이전 편찬되었다고 알려진 『예문류취』(藝文類聚), 『태평어람』(太平御覽)의 「효자전」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십사효”의 개념의 탄생은 오대 말에서 송대 초기이며, 당시 제작된 돈황 장경동 문서 「고원감대사이십사효압좌문」(故圓鑿大師二十四孝押座文)에서 “二十四孝”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난다.<sup>8)</sup> 또한, 효자도와 관련된 가장 이른 도상은 동한(東漢) 말기, 산둥(山東)성 가상(嘉祥)현 무량사(武梁祠)의 화상석(桓帝元嘉元年 151)에 우순(虞舜)·노래자(老萊子)·형거(邢渠)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북위(北魏) 말기 하남(河南)성 낙양(洛陽) 영무(甯懋)석실 석관(孝昌三年 527)에서도 우순·곽거(郭巨)·동영(董永)·노래자·미간적(眉間赤)·민자건(閔子騫)·정란(丁蘭)·유적(陸績)·맹종(孟宗)·효순원곡(孝孫原谷)·채순(蔡順) 등의 내용이 발견된다. 이후 송원금(宋元金)시기 효자도는 묘장석각이나 회화 형태로 대량 출현하였으며, 산

7) 현재 이십사효의 편집자는 곽거경(郭居敬) 외 그의 동생인 곽수정(郭守正) 그리고 곽거업(郭居業)이라는 주장이 있다. ① 王圻《續文獻通考》卷七十一·節義考·孝子中說：“郭居敬尤溪人。性至孝，事親，左右承順，得其歡心。嘗撫虞舜而下二十四人孝行之概序而詩之，名二十四孝詩，以訓童蒙。” ② 韓泰華《無事爲福齋隨筆》卷上中說：“坊間所刻《二十四孝》，不知所始。後讀《永樂大典》，乃是郭守敬之弟守正集。” ③ 潘守廉《二十四孝圖說並詩》自序中說：“至元朝郭居業始將伊古以來孝行卓著者集二十四人，名二十四孝，以昭後世。” ④ 世宗實錄 世宗10年10月3日辛巳，二十四孝郭居敬 / 元代 郭居敬編錄『全相二十四孝詩選』의 24명 효자의 선정과 배열은 虞舜(上古), 漢文帝(西漢), 閔損(春秋), 曾參(春秋), 王祥(晉朝), 老萊子(春秋), 丁蘭(東漢), 孟宗(三國), 黃香(東漢), 董永(東漢), 姜詩(東漢), 蔡順(漢朝), 唐夫人(唐朝), 吳猛(晉朝), 剡子(春秋), 黔婁(南齊), 張孝張禮(?), 田真(南朝), 楊香(晉朝), 陸績(三國), 郭巨(晉朝), 王裒(西晉), 朱壽昌(宋朝), 黃庭堅(北宋)으로 구성되어 있다.

8) 王重民等編, 「故圓鑿大師二十四孝押座文」, 『敦煌變文集』下冊卷七, 人民文學出版社, 1957年.

서(山西)성이나 감숙(甘肅)성지역 묘장 장식중의 인물도에 이미 이십사효 관련 내용들이 등장한다.<sup>9)</sup> 예를 들면, 원대 산서성 예성(芮城) 영락궁(永樂宮) 반덕충(潘德衝)의 묘석곽(墓石椁, 1260년)에는 동영·맹중·육직(陸稷)·한백유(韓伯楡)·왕무자(王武子)·왕상(王祥)·유명달(劉明達)·정관·임자(任子)·강시(姜詩)·노래자·증삼(曾參)·전진(田眞)·원각(元覺)·곽거·조효(趙孝)·유옹(劉膺)·노고(魯姑)·양향(楊香)·포산(鮑山)·조아(曹娥)·채순 등이 선조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24명의 효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아직 없으며, 인의(仁義)나 우제(友悌)를 표현한 내용, 즉 노고·전진·유옹·조효 관련 고사 등도 함께 혼재해있다. 그리고 곽거경이 편집한 24효 인물 중 자로(子路)·황향(黃香)·오맹(吳猛)·당부인(唐夫人)·황정견(黃庭堅)·주수창(朱壽昌) 7인은 감숙성 묘장장식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이미 각 시대마다 효와 관련 24명의 인물을 선정한 『이십사효』가 있었으며, 곽거경이 편집한 이후 관습적으로 “이십사효”라 불리게 되었다. 『이십사효』에 등장하는 20명은 대부분 춘추(春秋)·한(漢)·위진(魏晉)시대에 광범위하게 전해진 효행인물이며, 원대 산동성 제남(濟南) 시유기창(柴油機廠) 벽화묘에서 비로서 송대(宋代)의 주수창(朱壽昌)의 「기관심모(棄官尋母) 고사가 등장한다.<sup>10)</sup> 또한 내용에 있어 불교의 자연스런 수용도 보여지는데, 담자(鄭子)의 효행이 그 대표적이다. 고인도 가이국(迦夷國) 사람인 담자는 석성견(釋聖堅)이 번역한 『불설섭자경』(佛說談子經)과 돈황 막고굴 제299굴의 담자본생도(鄭子本生圖)에도 관련 내용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편집되면서 주나라 사람으로 되었다. 송대 임동(林同)의 『시효』(詩孝), 조맹견의 『조자

9) 송금원시기 효자도가 이 지역 묘장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 두 곳은 금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며, 이십사효 묘장관련 내용도 매우 흡사하다. 당시 효 관련 등장인물은 전쟁과 사회혼란으로 도적의 침입과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 외 이십사효가 출현한 묘장은 다음과 같다. 甘肅隴西縣的宋墓, 甘肅臨夏金代磚雕墓, 甘肅蘭州金代磚雕墓, 甘肅漳縣元代汪世顯家族墓, 山西長子縣石哲金代壁畫墓, 山西壺關南村宋代磚雕墓, 山西聞喜小羅莊金代磚雕墓.

10) 감숙성 宋과 金묘장에서 보이는 효 관련 인물 19명은 敦煌遺書에도 보인다. 「父母恩重經寫本」, 「故圓鑿大師二十四孝押座文」, 「孝子傳」, 「古賢集」, 「詠孝經詩」 등 문서 중에 19인이 기록 (등장인물은 舜, 閔子騫, 老萊子, 閔子, 孫元覺, 丁蘭, 王裒, 趙孝, 江革, 郭巨, 董永, 蔡順, 姜詩, 鮑出, 孟宗, 王祥, 田眞, 王武子, 劉明達) 魏文斌·唐曉軍·師彥靈, 「甘肅宋金墓“二十四孝”圖與敦煌遺書《孝子傳》」, 『敦煌研究』, 1998年, 第3期.



고이십사효서화합벽, 원대 곽거경의 『전상이십사효시선』, 왕극효(王克孝)의 『이십사효도』, 사응방(謝應芳)의 『귀납집·이십사효찬』(龜巢集·二十四孝贊) 등의 편찬으로 보아 이미 당시 서사적 도상이 일반화되었다고 짐작된다.<sup>11)</sup>



그림 3. 송원금시기 묘장출토 "이십사효" 도상

예컨대, 송원금시기에 이십사효관련 도상이 묘장장식 조각이나 회화에서 많이 출현하는 원인은 송의 이학(理學)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이학의 주요논리는 이(理)는 예(禮)이며, 예의 핵심은 효인 것이다. 유교도덕의 핵심인 효 관념이 통치자에 의해 입신교민(立身教民), 태평치국(太平治國)의 일환으로 강조되어 선양되었기 때문이며, 당시 생활정신문화의 한 반영이기도 하였다.

이후 명청시대 이르러 상업경제와 출판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이십사효도〉 관련 도서와 도상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명대 주정(周靜)의 『계편몽이십사효일기고사』(鍬便蒙二十四孝日記故事), 『신계휘군원판교정회상주석괴자편몽일기고사』(新鍬徽郡原板校正繪像注釋魁字便蒙日記故事), 유용전(劉龍田)의 『신결류해관양일기고사대전, 이십사효』(新鍬類解官樣日記故事大全, 二十四孝)가 있고,

11) 지금까지 알려진 "二十四孝" 관련 판본은 北京圖書館收藏 明洪武年間初刊本『全相二十四孝詩選』, 日本龍谷大學收藏 明嘉靖二十五年刊『新刊全相二十四孝詩選』手抄本, 河南省 南陽市 社旗縣 山陝會館 郭居敬繪制 刺繡〈二十四孝圖〉가 있다.

청초에 제작된 소림사(少林寺) 지장전(地藏殿)의 <이십사효도> 벽화는 원대 괘거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어서, 오정수(吳正修)의 『이십사효고사』(二十四孝鼓詞)를 비롯하여 다량의 『출상이십사효신정일기고사』(出像二十四孝新訂日記故事), 『일기고사대전이십사효』(日記故事大全二十四孝), 『수상이십사효도설』(繡像二十四孝圖說), 『수상이십사효신정일기고사』(繡像二十四孝新訂日記故事), 『이십사효도시』(二十四孝圖詩), 『여이십사효도』(女二十四孝圖), 『남녀이십사효』(男女二十四孝), 청말에 왕소(王素)의 『이십사효도책』, 진소매(陳少梅)의 『이십사효도』, 임백년(任伯年)의 『이십사효도』, 서조(徐操)의 『이십사효사』, 장지동(張之洞)의 『백효도설』(百孝圖說) 등이 출간되었다. 그 외 북경(北京) 용천사(龍泉寺) 희루(戲樓)의 <이십사효도> 목조각, 중경(重慶) 기강(綦江)의 <이십사효도> 부조석각, 강서(江西)성 무주(撫州) 광창(廣昌)현 사씨고사당(謝氏古祠堂)의 <이십사효도> 연환벽화(連環壁畫), 광둥(廣東)성박물관 소장 <이십사효도> 금철목조병풍 등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말 중경 탁하포(濯河壩) 침신안연방(詹信安煙房) 발행 전표(錢票) 도안에도 <이십사효도>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이십사효』는 조선에 전해져 『효행록』과 『삼강행실도』 등에 수록되었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긴 『삼강행실도』는 1432년(세종 14년) 집현전 부제학 설순(設循), 맹사성(孟思誠), 권채(權採) 등이 왕명에 따라 권부의 『효행록』에 우리나라의 옛 사례들을 추가하여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도서로 삼고자 편찬하였다. 『삼강행실도』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권채는 서문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속에서 효자·충신·열녀로서 특출한 사람 각 110 명씩을 뽑아 그림을 앞에 놓고 행적을 뒤에 적되 찬시(讚詩)를 한 수씩 붙였다. 이 시는 효자의 경우 명나라 태종(太宗)이 보내준 『효순사실』에 실린 시와 신의 고조인 권부가 편찬한 효행록 중 이제현(李齊賢)이 쓴 찬을 옮겨 기록하였으며, 거기에 없는 충신·열녀편의 찬과 시 등은 모두 편찬관들이 나누어지었다.”<sup>12)</sup>라

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 『삼강행실도』, 천풍인쇄, 1982년, 29-30쪽.

고 밝히고 있다. 즉, 구성내용은 조선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이룬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삼강(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효자·충신·열녀 즉, ① 삼강행실효자도(三綱行實孝子圖) ; 중국 순임금의 효를 다룬 「우순대효(虞舜大孝)을 비롯하여 역대 효자 110명, ② 삼강행실충신도(三綱行實忠臣圖) ; 「용봉간사(龍逢諫死)을 비롯하여 112명의 충신, ③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 ; 「황영사상(皇英死湘)을 비롯하여 94명의 열녀를 뽑아 그 행적을 소개한 한문판본이다. 여기에 중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조선의 실례를 조사하여 첨가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더했으며, 사례 전후에 글과 그림을 결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살렸다. 시로 찬을 하고 그림으로 새긴 것은 사대부와 백성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교화의 방법이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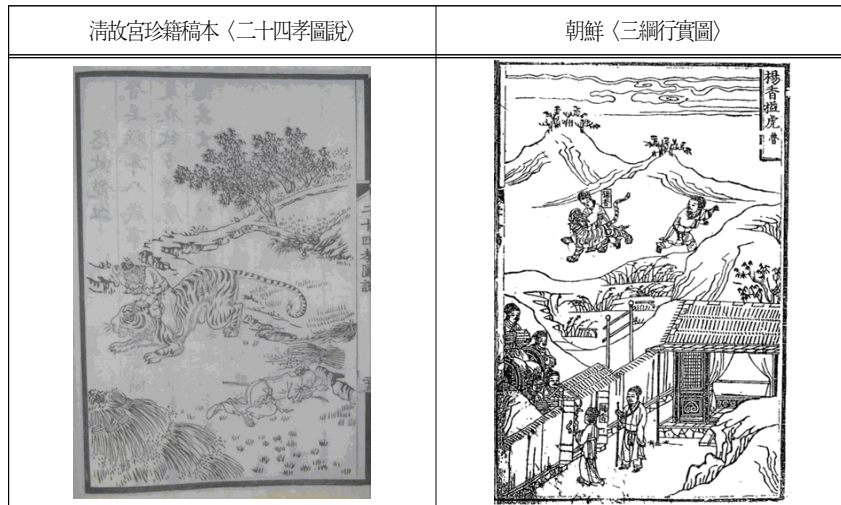


그림 4. “楊香扼虎” 도상

13) “上御經筵，上嘗聞晉州人金禾殺父之事，瞿然失色乃自責，遂召群臣，議所以效孝悌厚風俗之方，判府事下季良曰，請廣布孝行錄等書，使閭巷小民尋常讀誦，使之駭駭然入於孝悌禮儀之場，至是上謂直提學俛循曰今俗薄惡，至有子不子者，思欲刊行孝行錄，以曉愚民，此雖非救弊之急務，然實是教化所先宜因舊撰二十四孝，又增二十余孝，前朝及三國時孝行特異者，亦皆哀集撰成一書”，『世宗實錄』卷42，10年10月辛巳條。

하지만 『삼강행실도』는 1443년 한글 창제 이후인 1481년(성종 12년) 원본을 3분의 1로 축약하여 한글로 번역 간행한 언해본과, 1490년 선정본이 간행되면서 부터이며, 백성들 사이에 보편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삼강행실도』의 판본의 간행과 출판보급이 본격화되었다. 이어 1511년(중종 6년)과 1516년, 1554년(명종 9년), 1606년(선조 39년), 1729년(영조 5년)에 각각 중간되어 윤리교과서로 활용되었다. 선정본의 경우는 110명의 사례를 35명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낱권으로 간행하였다. 특히, 중국의 사례가 줄고 조선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당시 사회상황과 부합되는 사례가 추가되거나, 유교의 이념과 상충되는 것은 배제하였다. <열녀도>에서는 후비와 제후부인의 사례가 모두 제외되었고,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는 사례가 사라지고, 부모의 봉양과 자녀의 양육의 사례만 남겼다.<sup>14)</sup> 이는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정치적 의도이며 교화의 구체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선사회가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삼강의 내면화를 통해 유교적 이념의 정당화를 요구하는 조선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이륜행실도』(1518), 『오륜행실도』(1797) 등이 『삼강행실도』의 체재와 취지를 살려 간행되었다.<sup>15)</sup> 하지만 각각의 편찬 동기와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15세기 초간한문본 『삼강행실도』의 편찬 목적이 당시 김화(金禾)의 부모살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타락한 인륜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교적 윤리관의 확대와 기강확립이었지만, 16세기 중종 때 편찬된 『속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는 패륜적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위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17세기 광해군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의 속편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와 부록인 『동국삼강행실도』(東國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년, 97-99쪽.

15) 그림이 실려진 효행관련 서적편찬발행 현황 : 14세기 二十四孝(1346), 15세기 三綱行實圖(1432), 諺文三綱行實圖列女圖(1481), 刪定諺解三綱行實圖(1490), 16세기 續三綱行實圖(1514), 二倫行實圖(1518), 宣祖改譯三綱行實圖(1579), 宣祖改譯續三綱行實圖(1579), 宣祖改譯二倫行實圖(1579), 17세기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5), 18세기 英祖改譯三綱行實圖(1726), 英祖改譯續三綱行實圖(1727), 英祖改譯二倫行實圖(1727), 成侍中孝行錄(1732), 五倫行實圖(1797), 19세기 金氏世孝圖(1865), 孝感圖(1895) 등

三綱行實圖)는 임진왜란에 의해 피폐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혼란한 국가의 안정 및 왕권회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으며, 효자와 충신, 열녀의 포상을 통해 민심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크다.<sup>16)</sup> 물론 백성들을 위한 애민정신과 바른 윤리의식을 심어주려는 교육목적도 있었지만, 지배층의 사회구조적 개혁 없이 피지배층의 자발적인 복종의 내면화도 큰 실천적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언해분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책하여 수정 편찬한 『오륜행실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범된 행실과 절개에 감동받아 애절한 마음이 발하게 하는 교화서이지만,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효심을 고려하면, 오륜의 실천을 교육적으로 확대시켜 유교적 윤리를 공고히 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이, 유교적 윤리관을 백성에게 확대 보급하려는 목적의 『삼강행실도』는 개인적 덕목 함양과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지만, 나아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를 강조하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에 따른 조선초기의 윤리전통은 국가적 안정과 통합체계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관계의 질서로서 충과 효의 규범질서를 강조하였지만, 이후 조선사회는 개인과 가정의 도덕윤리관의 고양과 사회공동체 그리고 국가권력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내면의 도덕성 교화 즉,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경(敬)과 의(義)의 윤리규범도 함께 중요시하였다.

### 3. 『삼강행실도』의 효 관련 서사와 도상의 조형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는 『삼강행실도』 편찬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효의 도덕적 규범은 충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윤리로서, 국가기강 확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교육적 실천 덕목으로 강조되었다. 나아가 유교적 국가이념의 확대와 백성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글과 그림을 활용한

16) 최윤철, 「조선시대 행실도 판화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09년, 501쪽.

시각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당시 불교의 경전, 소설의 삽화, 의궤의 도설, 유교의 교화서 등이 글과 그림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삼강행실도』의 글과 그림의 이중성은 문자 해독력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묘사된 그림 자체만으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결국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을 본다는 것은 결국 그림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는 의미이다. 『삼강행실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앞면에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을 요약하여 함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문으로 그 행적과 찬시를 뒷면에 서술했다. 그러므로 『삼강행실도』는 먼저 그림의 표제와 그림을 먼저 감상하면서 내용을 상상하고 흥미한 다음 뒷면의 찬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여 숙지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삼강행실도』의 서문에서도 동일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그런즉, 『삼강행실도』는 백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설정했다기보다는 지식층인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보아진다.<sup>18)</sup> 이는 세종의 중추원사(中樞院使)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짓게 한 1434년(세종 16년) 교서(敎書)에 잘 나타나 있다.

교서를 살펴보면 “삼강은 인도의 대경(大經)이니, 군신·부자·부부의 버리를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적을 편집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고, 인쇄하게 하여 서울과 외방에 널리 퍼고 학식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항상 가르치고 지도하여 일깨워 주며, 장려 권면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알아서 그 도리를 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땡겠는가.”라고 적고 있다. 또한 “어리석은 백성이 향하여 갈 바를 몰라 흐리멍덩하게 본받는 바가 없으므로, 이에 유신에게 명하여 고금의 충신·효자·열녀 중에서 뛰어나게 본받을만한 자를 뽑아서 그 사실을 따라 기록하

17) “그래서 이글을 만들어 민간에 널리 보급해서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천하거나 어린아이거나 부녀자이거나 모두 즐겁게 보고 익히 듣게 하시니, 그 그림을 펴보아 형용을 생각하며, 그 시를 읊어서 성정을 체득하면, 모두 흠양하여 부러워하고 감탄하며, 권장되고 격려되지 않음이 없어서, 다 같이 타고난 마음이 감발되어 그 직분을 마땅히 다할 것이다.” 세종대왕기 념사업회편, 『삼강행실도』, 천풍인쇄, 1982년, 30쪽.

18) 이영림, 「삼강행실도, 유교윤리의 강요와 모방, 전유의 장」, 『시민인문학』, 제16호, 2009년, 273-274쪽.

고, 아울러 시찬(詩贊)을 저술하려 편집하였으나,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고, 인쇄하여 널리 퍼서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과 시골 부녀자들까지도 모두 쉽게 알기를 바라노니, 펴보고 읽는 가운데에 느껴 깨달음이 있게 되면, 인도하여 도와 주고 열어 지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움 됨이 조금이나마 없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오."라고 적고 있다.<sup>19)</sup> 이어서 세종은 "주례(周禮)를 보니, 외사(外史)는 책 이름을 사방에 펴 알리는 일을 주관하여 사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책의 글자를 알게 하고 책을 능히 읽을 수 있게 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서울의 한성부 오부(漢城府五部), 외방의 감사(監司)·수령(守令)이 널리 학식이 있는 자 즉, 사대부 계층으로 하여금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분명히 깨달아 모두 다 알도록 하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sup>20)</sup>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그림을 통해 흥미를 갖고 즐겨보며 익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실제처럼 상상하게 하며, 이어서 찬을 읽으며 함께 내용을 이해하고 체화하려는 의도이다. 그림이 본래의 목적이고 글은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책의 이름도 "圖"자를 넣어 『삼강행실도』라 명명하였으리라 본다.

예컨대, 『삼강행실도』 편찬 당시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연히 한문본이었으며, 이는 교화용 도서로서는 매우 큰 단점이었다. 이처럼 아마도 그림을 넣은 것은 내용을 한자로 서술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이 그 내용을 직접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불편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화로 제작된 시각적인 그림을 함께 구성하여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형상적 교육 방편이었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처럼 『삼강행실도』 관련 도서들을 통해 국가이념을 직접적으로 백성을 교화하

19) 世宗實錄 64卷, 16年(1434甲寅/明宣德9年), "三綱, 人道之大經, 君臣父子夫婦之所當先知者也. 肆予命儒臣編集古今, 并付圖形, 名曰《三綱行實》, 俾鍍于梓, 廣布中外, 思欲擇其有學識者, 常加訓導, 誘掖獎勸, 使愚夫愚婦皆有所知識, 以盡其道, 何如?"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삼강행실도』, 천풍인쇄, 1982년, 23-24쪽.

20) 앞의 책, 24쪽.

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하더라도, 언해본을 다양하게 출판하여 백성들에게 보급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과과정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주제에 따른 인물 선정, 서사와 도상 표현 간의 관계성 그리고 도상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표현 및 그 양식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삼강행실도』의 체계는 이미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3권 1책으로 그 중 「효자편」의 내용 구성은 중국의 24효자와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원대 곽거경(郭居敬)의 『이십사효』의 24명의 효자는 우순·한문제·민손·증삼·왕상·노래자·정란·맹종·황향·동영·강시·채순·당부인·오맹·염자·검루·장효장례·전진·양향·육적·곽거·왕부·주수창·황정건으로 구성<sup>21)</sup>되어 있으나, 고려본 『효행록』 전찬(前贊)부에 순제·노래자·곽거·동영·민손·증삼·맹종·왕상·강시·채순·육적·정란·전진, 장효장례·염자·양향, 후찬(後贊)부에 한문제·황향·왕부·오맹·검루·주수창·당부인이 등장하며 북송의 황정건이 누락되었다.

『삼강행실도』는 중국의 『이십사효』의 영향아래 고려본 『효행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삼강행실도』의 「효자편」에는 111편의 효자(우리나라 효자 23명 포함, 조선 12명)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주요 서사 내용은 부모에 대한 봉양, 병구완, 구명, 대속, 여묘, 애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려본 『효행록』에 수록

21) 元代 郭居敬編錄『全相二十四孝詩選』은 中國國家圖書館收藏本, 日本龍谷大學圖書館所藏手抄本, 日本禦伽草子本과 河南省南陽市社旗縣山陝會館藏郭居敬繪制刺繡《二十四孝》圖 등이 알려져 있다. 그 24명 효자의 구성이 淸家秘本, 「二十四孝詩經, 二十四章孝行錄抄」처럼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① 明清代《日記故事》系〈二十四孝〉: 虞舜, 漢文帝, 曾參, 閔損, 仲由, 董永, 劔子, 江革, 陸績, 唐夫人, 孟宗, 王祥, 郭巨, 楊香, 朱壽昌, 黔婁, 老萊子, 蔡順, 黃香, 姜詩, 王裒, 丁蘭, 吳猛, 黃庭堅 ② 狩谷掖齋藏, 「孝行錄古抄本, 二十四孝」: 虞舜, 老萊子, 郭巨, 董永, 閔損, 曾參, 孟宗, 劉殷, 王祥, 姜詩, 蔡順, 陸績, 王武子, 曹娥, 丁蘭, 劉明達, 元覺, 田真, 魯姑, 趙孝宗, 鮑山, 韓伯瑜, 劔子, 楊香. ③ 甘肅宋金墓葬中 발견된 효자 30명: 虞舜, 閔損, 老萊子, 劔子, 曾參, 魯姑, 原谷, 漢文帝, 淳于緹縈, 劉平, 董永, 田真, 姜詩, 蔡順, 趙孝, 曹娥, 茅生, 江革, 郭巨, 王祥, 丁蘭, 陸績, 孟宗, 王裒, 鮑出, 楊香, 劉殷, 伯瑜, 王武子, 劉明達. 張或定·張哨峰, 「清末四川濯河壩詹信安煙房錢票與二十四孝圖」, 『中華紙幣研究』, 2002年.



된 20명의 중국 효자가 동일하며, 전진·장효장례·염자 그리고 황정건만 누락되어 있다. 즉, 콰거경본의 『이십사효』<sup>22)</sup>, 고려본 『효행록』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효자에 모두 일치하는 인물은 20명이다. 하지만 명대 유행한 『일기고사』(日記故事) 계열의 『이십사효』에는 콰거경본의 『이십사효』와는 달리 장효장례와 전진 대신에 자로(子路)와 강혁(江革)을 넣고 있으나, 이 두 명 또한 『삼강행실도』에 소개되어 있다. 이는 간행시기의 사회적 분위기나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수록 인물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효행록』의 「이십사효」와 그 기원이 되는 중국의 콰거경본이나 명대 『일기고사』 계열의 「이십사효」본 등 완전히 일치하는 중국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송금원대의 북방 분묘에 나타나는 〈이십사효도〉 벽화나 석각화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23)</sup> 나아가 『삼강행실도』의 영향이 『효행록』이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원나라의 도상 『효경』 및 『열녀전』의 출판사업을 답습했거나, 『효순사실』, 『오륜서』, 『대명인효왕후근선서』(大明仁孝王后勤善書) 등 명나라 도서의 영향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sup>24)</sup> 하여튼, 당시 고려와 원, 조선과 명의 밀접한 정치·문화적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 북방에서 유행한 『이십사효』 고사와 도상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sup>25)</sup>

22) 陳氏, 孝娥, 元覺, 許孜는 콰거경의 『이십사효』에 등장하지 않는다. 명대 유행한 『日記故事』 계열의 『이십사효』에는 콰거경본의 『이십사효』와는 달리 張孝張禮와 田眞 대신에 仲由(子路)와 江革을 넣고 있다. 『효행록』, 『삼강행실도』에는 陳氏, 孝娥, 元覺, 許孜, 子路, 江革 모두 등장한다.

23) 北宋崇寧5年(1106)洛陽張君石棺線刻孝子烈女圖, 北宋宣和7年(1125)河南鞏縣石棺線刻圖, 金明昌6年(1195)山西長治安昌金墓壁畫, 金代中期山西長子縣石哲金墓壁畫, 元至元12年(1275)山西芮城永樂宮沖和真人潘德冲墓石槨線刻圖에 표현된 『이십사효』는 24명 모두 『효행록』과 일치한다. 김문경, 「高麗本《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제1회규장각한국학심포지엄발표집』, 2008년, 125-126쪽.

24) 宮紀子(『モンゴル時代の出版文化』,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는 원나라의 도상 『孝經』 및 『列女傳』과의 관련성을, 옥영정(『『삼강행실도』판본의 간행과 유통』, 韓國學中央研究院 編,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과 신은경(『『삼강행실도』의 다성성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9)은 『孝順事實』, 『五倫書』, 『大明仁孝王后勤善書』 등 명 도서와의 영향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25) 日本 鎌倉末期에서 室町初期(1300-1338年)에 이미 『全相二十四孝詩選』이 일본에 전해 졌다. 현재 慶長(1596-1615年)년간의 嵯峨角倉氏刊本 『二十四孝』, 明歷二年(1656年)의 『新版二十四孝』, 寬文五年(1665年)의 『二十四章孝行錄抄』, 元祿版의 『二十四孝諺解』, 寬永

또한 『효행록』을 기초로 한 『삼강행실도』의 『효자편』을 살펴보면 111편 중 88편의 광범위한 중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원명시대의 이야기도 12편이나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십사효』 관련 판본이 청대에 이르러 다수 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문에서는 청대 고궁진적고본 『이십사효도설』을 참고로 『삼강행실도』 도상적 특징과 양식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종 때(1434년) 간행된 『삼강행실도』를 시작으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복간되거나 개간되었다. 『삼강행실도』를 바탕으로 성종 때 『언문삼강행실도』, 중종 때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광해군 때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정조 때 『오륜행실도』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는데, 내용에 있어 많은 반복이 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판식이나 구도, 선, 공간 분할 등 구성이나 도상의 조형 양식이 다르고 미적정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표현적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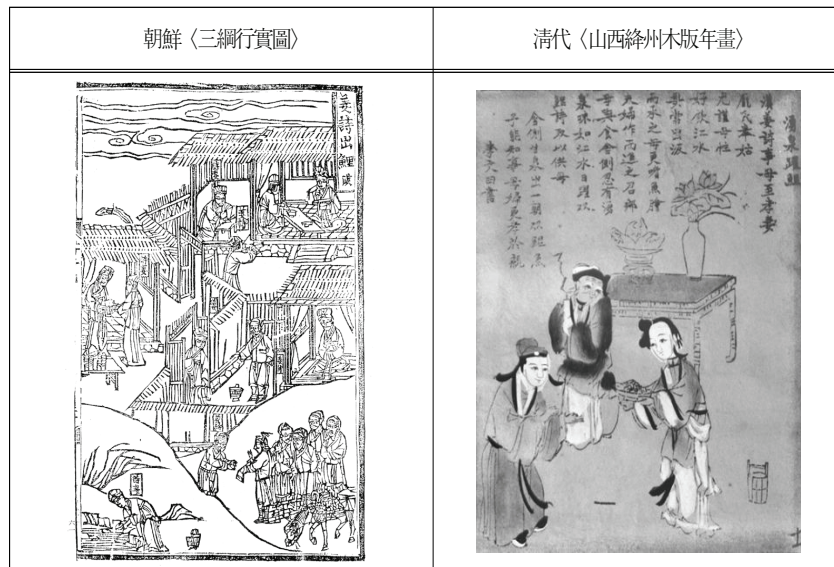


그림 5. 『姜詩出鯉』 도상

版의 『二十四孝繪抄』 등과 이외 중국의 이십사효를 개편하여 편집한 일본판 『皇朝二十四孝』, 『今樣二十四孝』, 『大倭二十四孝』, 『本朝二十不孝』 등이 알려져 있다.

『삼강행실도』류의 화면구도는 『이십사효』의 단일 화면만으로 구성하여 효자의 행실을 표현한 것과는 달리, 전체 내용의 중요 장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있는데, 서술방식 중심의 서사적 구도와 이미지 중심의 도상적 구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서사내용의 정확하고 쉬운 전달을 위해 한 화면에 많게는 8장면까지 분할하여 구성하기도 하였다.<sup>26)</sup> 순간적인 여러 화면의 연속이란 곧 시간의 흐름을 말하며 시간의 변화는 공간의 변화를 유도한다. 하지만 단일장면의 경우 서사내용 중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행실 한 장면만을 부각시켜 표현하기에 시각적인 강조함을 필요로 한다. 『삼강행실도』의 〈육적회괘〉(陸績懷橘)은 육적이 어렸을 적 원술을 방문하고 이별할 때 노모를 위해 가슴에 감추었던 귤이 땅에 떨어져 발각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 상단부에 원술이 집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귤을 앞에 두고 육적과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 상하부에는 구름과 산으로 둘러싸여 산수를 배경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부모님이 모기에 물릴까봐 모기를 쫓지 않고 자신을 모기에 물리게 한 〈오맹문서〉(吳猛蚊噬)의 도상도 비슷한 구성이다. 그 외 〈반종구부〉(潘綜救父)는 반종이 전란 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을 가다 반군을 만나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대신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의 상단부에 반군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든 장면과 손사래를 치는 반종의 모습을 작지만 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대부분 화면은 산수 배경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에 많이 보이며, 특히 『오륜행실도』의 경우 다른 행실도의 서사에 따른 여러 공간을 한 화면에 나누어 여러 장면으로 구성하는 방식과는 달리 서사의 공간이 통합되고 장면의 수가 축소되어, 화면에 가장 중요한 한 장면만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서사의 설명적 요소를 생략하고 그림속의 상황을 더욱 함축적이며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로인해 산수화처럼 인물이 작고 배경

26) 『삼강행실도』류의 삽화 구성방식 대한 명칭에 대해, 정병모는 '일원적 구성방식'과 '다원적 구성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수경은 단일 장면방식(mono-scenicmode)과 복합 장면방식(multi-scenicmode)으로 나누었다. 또한 일본학자들은 '다원적 구성방식'이나 '복합 장면방식'이라는 용어 대신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고 송일기·이태호는 이를 '일도다화식(一圖多話式)'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최정란, 「朝鮮時代 '行實圖'의 木版畫 樣式에 대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년, 64쪽. 재인용.

의 비중이 커지며, 공간의 원근감이나 산과 나무가 중심이 되어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근경의 산의 묘사에 있어서도 선의 강약과 단선점준 혹은 부벽준을 사용하여 원근과 대상의 실제감을 높였다. 복합장면의 경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화면 구조를 옴니버스 식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삼강행실도』 효관련 도상은 단일 장면 17편, 2장면 29편, 3·4장면 각 22편, 5장면 11편, 6장면 7편, 7·8장면 각 1편으로, 대부분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된 복합 장면으로 이루어져있다.<sup>27)</sup> 이는 당시 일반백성의 문자이해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반증한다.

복합장면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면, 2~8개의 다양한 장면을 배치함에 있어, 서사적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 2~4개 장면의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혹은 그 역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여러 장면을 넣은 것은 백성들의 문자적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이지만, 내용을 모르면 서사 전개구성이 복잡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 예를 들면, <채순상심>(蔡順桑樞)의 경우는 그림의 왼쪽 아래에 ①어미가 손가락을 깨무는 장면을 시작으로 그 위로 ②채순이 달려오는 장면, 아래로 ③채순이 집에 도착하는 장면, 다시 위로 ④채순이 오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도둑이 쌀을 나누어 주는 장면, 다시 오른쪽 아래로 진행하며, ⑤어미 장사지내는 데 불이나 관을 안고 슬퍼하며 호소하는 장면, 상단부에 ⑥여묘살이에 천둥이 쳐서 슬퍼하는 장면, 그 오른쪽에 ⑦태수가 수레와 말을 보내는 장면 등 위로 아래로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읽게 구성이 되어있다.

<왕상부빙>(王祥剖氷)의 경우에도 그림의 왼쪽 중간에 ①왕상이 계모의 시기로 쇠뿔을 치우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단부에 ②계모에게 산 고기를 드리기 위해 왕상이 옷을 벗고 얼음을 깨는 장면, 그 위 중앙에 ③계모를 위해 왕상이 참새를 잡는 장면, 상단부 왼쪽에 ④계모가 능금나무를 지키라하여 왕상이 바람이 불자

27) 『이륜행실도』는 48편 중 2·3장면이 32편이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1~3장면 가장 많고 5~6장면은 극히 소수이다. 『오륜행실도』는 단일장면뿐으로, 간행 당시 일반인들이 한글이해 수준이 높아져 그림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전달이 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책, 66-73쪽.

나무를 붙들고 우는 장면, 그 오른쪽에 ⑤계모가 죽자 왕상이 관 앞에서 슬퍼하는 장면 등 S자형의 역방향으로 이동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복합장면의 경우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불규칙한 서사적 구성을 취하였으며, 이는 일반 백성의 내용적 이해를 충분히 염두해 둔 것은 아니며, 조형적인 구도와 이미지의 조화 즉, 시각적인 예술성을 내용적 서사보다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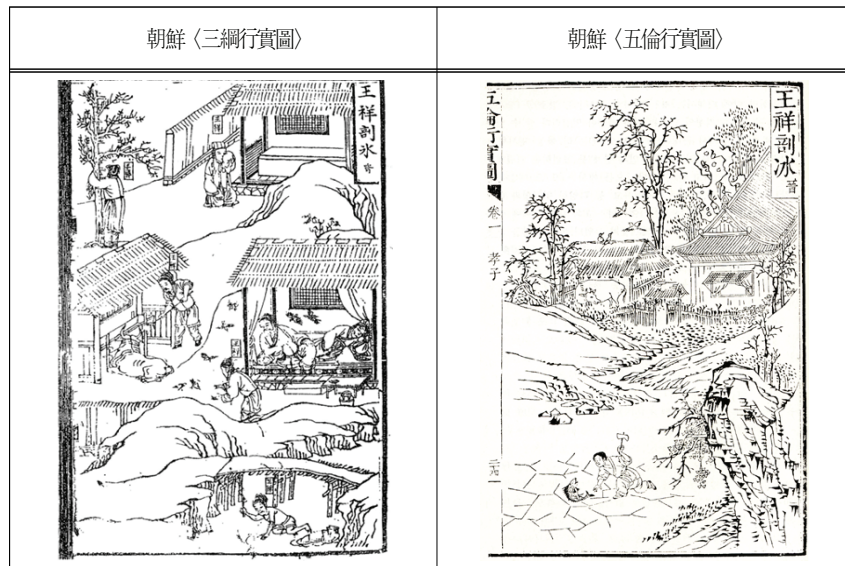


그림 6. 『王祥剖冰』 도상

또한 서술 장면의 형식이나 구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여준다. 『삼강행실도』에서 「왕상부빙」의 내용을 한 화면에 여러 장면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반면에, 『오륜행실도』에서는 『이십사효』의 구성처럼 단일 구도이지만, 대표적인 서사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장면 속에서 극적으로 부각시켜, 즉 왕상이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잡는 한 장면만을 선택하고, 배경에 외양간의 소와 날고 있는 참새를 배치하여 연관된 다른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효행의 중요한 얼음 깨는 장면은 주변의 앙상한 겨울나무와 거친 바위절벽의 세부적인 표현이 상응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처럼 같은 주제라도 시기에 따라 표현양식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삼강

행실도』의 구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선형 구도, S자형 구도, 원형 구도가 주를 이룬다. 사선형 구도의 대표적인 예는 〈맹종읍죽〉(孟宗泣竹)으로, 오른쪽 상단의 산세가 담장과 사선으로 연결되며, 지붕의 방향도 방향을 함께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부각시키며 그 사선을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어 양면에 맹종의 효행을 대칭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S자형 구도는 산수를 배경으로 표현한 〈우제대효〉(舜帝大孝), 〈노래반의〉(老萊斑衣), 〈강혁거효〉(江革巨孝) 등에서 보인다. 산의 중첩을 통해 원근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며 전체 화면을 산수화처럼 처리하고 있다. 원형 구도는 원만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오맹문서〉(吳猛蚊噬)가 대표적인 예이다. 산 능선이 오맹의 효행장면을 둘러 감싸고 있으며 주제를 안정감있게 부각시켜준다. 이 경우는 찬문이 짧고, 설명해야 할 내용이 많지 않아 단일장면으로 표현되었는데, 그런 연유로 산수풍경으로 전체구도의 균형 맞추고 있다.

『삼강행실도』의 서사적 흐름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표현에 따른 구획의 표현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표현되었다. 동일한 공간에서 주인공의 행위가 다를 경우는 하나의 공간에 인물이 여러 번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 장면 구획은 이야기의 특성에 따라 산 능선이나 구름을 이용하거나, 가옥과 담, 울타리 혹은 간략한 선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왕상부빙〉의 경우 이야기의 흐름이 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효과적인 이야기 설명을 위해 산 능선을 두어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강씨출리〉(姜詩出鯉)와 〈황향선침〉(黃香扇枕)의 경우는 가옥과 담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구획하고 있으며, 특히 〈당씨유고〉(唐氏乳姑)나 〈황향선침〉에서는 한 가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세 채의 가옥을 두어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세 개의 연속된 장면을 하나의 가옥구조 안에 표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여기에서 담은 상황전개가 동일한 공간의 집에서 발생함을 암시한다. 그 외 〈강혁거효〉에서는 일반적인 선을 첨가하여 장면을 구획하거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조형적인 요소로서 활용하기도 하였다. 〈육적회괘〉에서는 오히려 화면 아래에 여백과 단순한 산 능선을 표시하는 선을 넣어 복잡한 장면을 완화시키고 있다. 『속삼강행실도』에서는 3~4장면으로 공간이 구획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찬문의 내용도 줄어들고, 장면 사이의 구획이 줄어들고 동일한

주인공이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배경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즉, 찬문이 짧아지면서 서사내용을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형상화시킬 필요성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장면분할이 줄었지만 찬문에 생략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판화가 지닌 조형요소를 통한 서사전달은 독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또한 묘사에 있어 등장인물의 복식과 묘제방식 및 가옥형태나 기물들에 서도 『삼강행실도』에서는 대부분 주인공이 중국인물이기에 중국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점차 한국적 양식으로 변화한다.<sup>28)</sup> 예를 들면, 『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묘제방식은 상례와 장례 및 여묘 풍습이 분명하며 복식이나 제례의식이 조선시대 유교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분묘가 초기에는 중국식의 전분(塹墳)이었으나 봉분이 둥근 토분(土墳)과 비석, 망주석 그리고 상석을 갖춘 형식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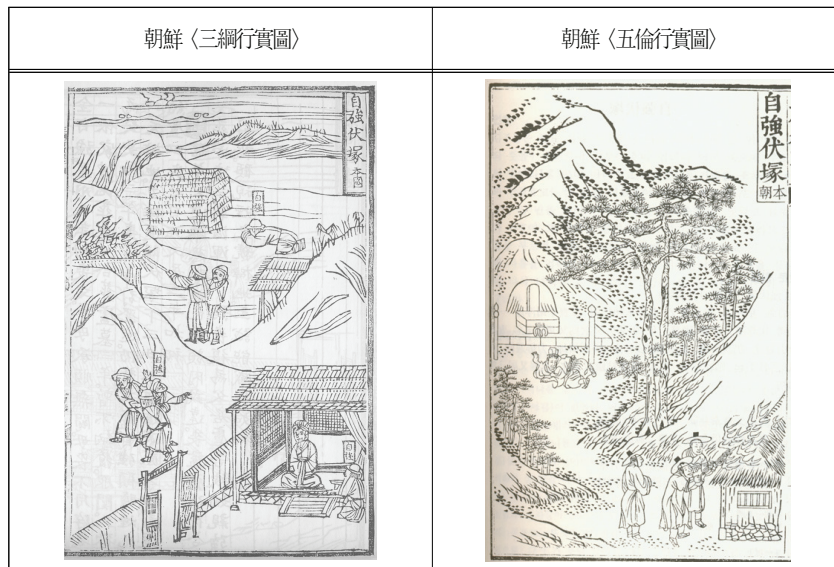


그림 7. 『自強伏塚』 도상

그리고 〈민손단의〉(閔損單衣)의 양 갈래로 머리를 뚫아 올린 민손의 중국식 등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년, 113-116쪽.

자형 머리 형식은 『오률행실도』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자강복총〉(自强伏塚)에서는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양반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중국도서를 재간행하거나 수록된 삽화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한국의 자국 문화의 주체적 반영과 예술에 있어 자주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오률행실도』의 〈왕상부빙〉이나 〈석진단지〉(石珍斷指)의 배경에서 보이는 산수형식은 같은 시기 활동한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실경산수 화풍과 많이 흡사하다. 『오률행실도』에 오면 단일장면의 구성뿐으로, 시간과 공간의 표현에 따른 구획이 사라진다. 이는 당시 대중들의 한글이해 수준이 높아져 서사적 흐름에 따른 순차적 이미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전달이 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서사적 내용을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화면에 묘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포상관련 내용이 미리 화면 상에 그려지기도 한다. 〈양향액호〉(楊香搯虎)의 경우 태수가 곡식과 비단을 하사하는 장면과 효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집 앞에 세운 정문(旌門) 등이 화면의 전면에서 표현되는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모범적 효행을 알리고 장려하기 위한 당시 포상정책<sup>29)</sup>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컨대, 서사에 따른 그림속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그림에 담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고 독자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판식에 따라 『삼강행실도』는 일반적으로 앞면에 도상, 뒷면에 한문 서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속삼강행실도』와 『이률행실도』는 앞면의 도상 상단에 한글 언해 서사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뒷면에 한문 서사내용을 배치해 전체 화면구성이 복잡해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삼강행실도』와 달리 언해의 내용과 그림을 한 장에 배치하고 있어 이미지와 함께 내용을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이와 달리,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오률행실도』는 한글 언해 서사가 뒷면 한문서사 내용의 뒤에 배치한 또 다른 구성형식을 보여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오률행실도』의 이미지 묘사에 있어 비슷한 주제의 경우 비슷한 인물 형상과 배경 구도로 정형화 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강혁거효〉의 도적 우두머리와 그를 보호하는 병사의 구도는 〈충신

29) 앞의 책, 142쪽.



편)에 등장하는 장수의 무리와 형식이 비슷하게 묘사되었다. 즉, 이미지는 도상의 변별성 보다는 하나의 도식화된 기호로서 작용한다. 이는 이미지를 통한 도상적 서사 표현과 이해가 점차적으로 구조화되고 일반화되었음을 반증한다. 『삼강행실도』를 시작으로 『오륜행실도』가 간행되기 까지 360여 년 동안 꾸준히 충·효·열의 교훈을 담은 『삼강행실도』류의 도서가 발행되면서 도상적 서사방식도 어느 정도 관습화되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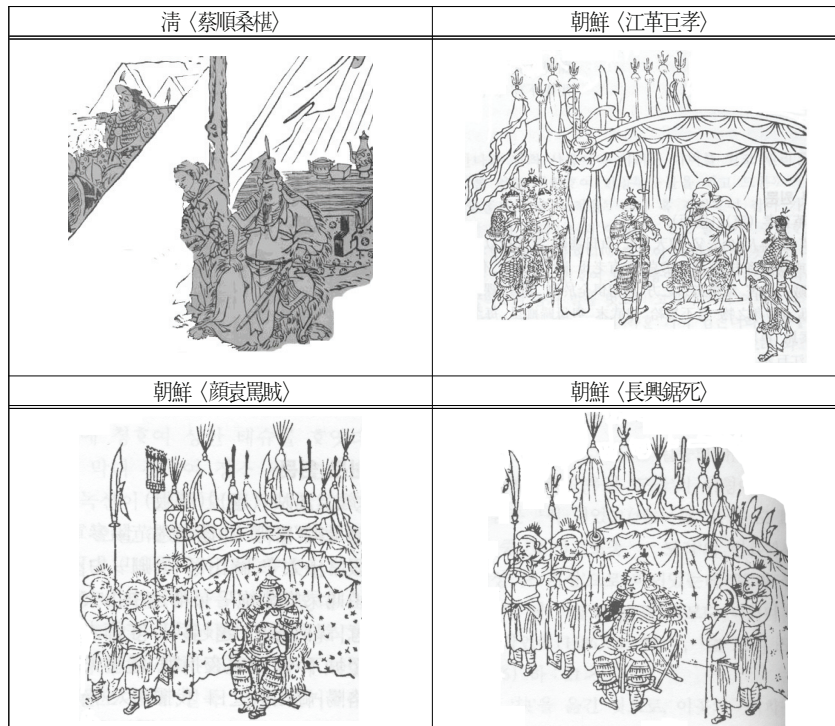


그림 8. 淸 (二十四孝圖說)과 (五倫行實圖)의 장군 도상

#### 4. 『삼강행실도』의 매체성과 서사의 사회성

조선은 명과 정식 외교관계(1401년)가 회복되면서, 사신을 통해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의 도서를 수입하여 조선본으로 간행 보급하였다.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가 주를 이루었고 성리학과 문학관련 도서도 있었다. 『효경』 및 『이십사효』, 『효행록』, 『열녀전』, 『효순사실』, 『오륜서』 등 효와 관련한 도서들이 수입 편찬되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강행실도』가 국가주도로 출판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조선 말기까지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이는 유교적 전통이념의 보급과 함께 관료사회의 질서확립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출판정책이지만, 윤리도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보여 진다.

책의 보급을 위한 판본의 확산과 소비 증대는 인쇄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삼강행실도』 출판이후 성종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줄인 단권의 언해가 추가된 선종본이 간행되면서 유통이 쉬워지고, 독자층은 관료, 유생 및 그 자녀나 부녀자에서 농민 상층부까지 넓어졌다. 하지만, 실질적 도서의 보급과 대중적 이해는 종종때 이루어진다. 『삼강행실도』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면서 종종은 『삼강행실도』를 한번에 2,940질을 간행하여 반사하였으며, 또한 조선의 사례를 늘린 『속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함께 편찬하였다. 종종은 『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할 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의 이름을 수록하게 하였으며, 종친이나 신하들에게 하사하면서 무언의 유교로의 개종과 왕에 대한 충성을 바라는 방편으로 삼았다.<sup>30)</sup> 또한 도서보급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효자와 열녀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국가에서 별도로 선정하여 포상하기도 하였다. 당시 『삼강행실도』를 보고 내용을 암송하거나 효행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생겨났으며, 삼년 여묘살이를 하거나 심지어 할고(割股)나 단지(斷指)를 통해 부모 병구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나아가 유교주의 의식의 관습화와 가문을 중시하는 문벌의식을 강화하는 간접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판화의 다양한 이미지 표현과 대량복제가 가능한 인쇄방식은 전통사회

30) 앞의 책, 85-86쪽.

에 있어 대량의 지식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중매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지키고 있었다. 『삼강행실도』와 같은 판화는 문자 메시지나 이미지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복제성과 동시성은 순수 회화작품으로는 불가능한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영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삼강행실도』의 판화적 표현은 문자와 별개로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 이해와 읽는 대중들로 하여금 상상력의 확장과 감정이입을 통한 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켜 교화를 유도하는 체험적 교육매체였다. 시로 찬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전달하게 한 것은 내용과 사례를 대중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감화를 통해 강하게 각인시켰으며, 실제로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끌었다.

예컨대, 조선은 『삼강행실도』 편찬과 더불어 새 왕조의 건국이념과 정책홍보 및 실천이 필요했으며, 판화형식의 대량인쇄를 통한 대중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출판은 그 대부분 정부 주도로 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초기에 도서의 보급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도서는 주로 고위관리와 사대부계층에 배포되었고 그 생산과 보급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삼강행실도』가 간행된 이후 『오륜행실도』의 출판까지 360여 년 동안 꾸준히 충·효·열의 교훈을 담은 『삼강행실도』류의 도서가 발행되면서 서사방식은 어느 정도 유교윤리의 실천은 물론 도상적 서사전달 방식의 발전을 가져왔으리라 본다. 조선에서 도서의 간행과 보급은 대중을 교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대중을 비교육적인 다수의 중하류 층이라는 편향적 인식이 내재되었을 것이다. 즉, 『삼강행실도』는 인쇄술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규범적 메시지를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하려는 강한 목적성을 지닌 매체였으며 정치적 욕망과 이데올로기를 이미지를 통해 상징화시켜 대중들에게 내재화한 선전물이었다. 이는 사회문화가 발전하면서 효과 관련한 이야기가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보편화되어 도상적 서사양식이 정형화됨을 반증한다. 특히, 중국의 『효행록』과 『이십사효』 도상이 조선에 유입되어 『오륜행실도』가 발행되기까지 오랜 변화를 거듭하면서, 『이십사효』의 윤리도덕적 성격이 오히려 중국보다 강조되었으

며<sup>31)</sup>, 조선 사회의 현실적 윤리의식이 투사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예술의 성장과 함께 도상적 이미지가 민족화되거나 예술적 회화양식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독자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나아가, 대중의 예술소비의 확대에 따른 문학과 회화의 대중적 취향의 예술양식의 전환과 유통 방식의 제고가 요구되었다. 이는 병풍형식의 단독 〈효자도〉 그림이나 민화로 발전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춘향전』이나 『심청전』 등의 판소리문학에도 일부 수용되어 불리어졌다.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삼강행실도』의 정취를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또한 『삼강행실도』는 임진·정유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에 전래되어 재간행 되었으며, 일본의 교훈서 편찬에 영향을 미쳤다.

정리하자면, 조선의 국가질서의 체계와 윤리규범의 체계는 『삼강행실도』를 통해 기본적인 유교적 도덕성과 사회관계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효의 윤리적 전통이 그 시대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요구 속에 선택되고 서사화 되며, 인쇄매체를 통한 대중과의 상호연관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삼강행실도』에 숨겨진 정치적 욕망의 표현과 이미지를 통한 서사와 상징 그리고 판화의 매체성은 조선 사회를 통해 이룬 정부의 대중에 대한 유교윤리로서 삼강의 정립을 위한 상향식 관계의 요구와 실천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강행실도』의 간행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서 이미지를 통한 도상적 서사방식 또한 단일한 형식과 논리에 의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서사적 언어의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 구조화되고 사회적 실천 가운데 통용되었던 것이다.

31) 중국에서는 청대에 들어와 희극이나 설창 등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으며, 일본의 『이십사효』는 정원서학(井原西鶴)의 〈본조이십사효〉처럼 예술적 창작소재로서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많다. 김문경, 『高麗本《孝行錄》과 中國의 〈二十四孝〉』, 『제1회규장각한국학심포지엄발표집』, 2008년, 129쪽.

〈參考文獻〉

- 곽수정·고월사·집록, 『이십사효』, 동서문화사, 2012.
- 윤호진, 『효행록』, 경인문화사, 2004.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삼강행실도』, 천풍인쇄, 1982.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이륜행실도』, 천풍인쇄, 2010.
- 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 『오륜행실도』, 서울대출판부, 2006.
- 이성,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홍문각, 1992.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시대 책의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 고위공, 『문학과 미술의 만남』, 미술문화, 2004.
- 김복영, 『이미지와 시각언어』, 한길아트, 2007.
- 李裕民, 「殷周金文中的“孝”和孔子“孝道”的反動本質」, 『考古學報』,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4.
- 魏文斌·唐曉軍·師彥靈, 「甘肅宋金墓“二十四孝”圖與敦煌遺書《孝子傳》」, 『敦煌研究』, 1998.
- 梁音, 「二十四孝の成立について」, 『名古屋外國語大學現代國際學部紀要』, 9号, 2013.
- 董新林, 「北宋金元墓葬壁飾所見“二十四孝”故事與高麗《孝行錄》」, 『華夏考古』2009-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9.
- 江玉祥, 「宋代墓葬出土的二十四孝圖像補釋」, 『四川文物』2001-4, 四川大學博物館, 2001.
- 趙文坦, 「關於郭居敬“二十四孝”的几个問題」, 『齊魯文化研究』, 山東師範大學齊魯文化研究中心, 2008.
- 曹小現, 「從《孝經》到古今《二十四孝》—淺談儒家孝道思想的繼承和創新」, 『才智』34, 2003.
- 張或定·張峭峰, 「清末四川濯河壩詹信安煙房錢票與二十四孝圖」, 『中華紙幣研究』, 2002.
- 문영진, 「효를 주제로 한 서사의 소통」,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 최윤철, 「조선시대 행실도 판화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형학회, 2009.
- 이영립, 「삼강행실도, 유교윤리의 강요와 모방, 전유의 장」, 『시민인문학』, 제16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김문경, 「고려본 《효행록》과 중국의 〈이십사효〉」, 『제1회규장각한국학심포지엄발표집』, 2008.
- 신은경, 「〈삼강행실도〉의 다성성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최정란, 「조선시대 ‘행실도’의 목판화 양식에 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최박광, 「조선통신사와 일본문학—삼강·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2,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88.
- 김훈식, 「16세기 《이륜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역사학보』 107, 역사학회, 1985.
- 김영호, 「근세초기 『삼강행실도』의 수용양상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 오정란,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도판 그림의 이야기 전달력 비교」, 『인문언어』, 국제언어인문학회, 2011.
- 신혜경, 「문학과 조형예술 간의 상호 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연구』 26, 한국미학예술학회, 2007.

#### 〈中文提要〉

孝道伦理是东方传统观念中非常重要的组成部分,而“以孝治天下”更是封建统治的重要特征。本论文在中日韩三国学者研究的基础上,对中国《二十四孝》和《三纲行实图》进行比较阅读,从而对二者故事脉络和情节相异点进行考察研究。

“二十四孝”观念在中国晚唐已产生,五代以后“二十四孝”的版本甚多,韩国高丽时代的《孝行彙》和朝鲜时代的《三纲行实图》收录了元代郭居敬编录《全相二十四孝诗选》的“二十四孝”。并且在题材方面表现出很强的一致性,《孝行彙》记载的二十四孝故事,也是《三纲行实图》种孝子图的重要题材。虽然和中国的原作采用了相同的人物,但有些故事的脉络和情节却很不相同。二十四孝故事在韩国流传之前,在中国关于二十四孝故事的版本也有很多。由于选取时,受朝鲜的发行目的、民族观念、编者的喜好、审美情趣等方面的影响,所以没有理由完全按照中国的二十四孝故事原文和图画进行翻译。虽然《三纲行实图》中的二十四孝是采用中国的故事脉络,但是《三纲行实图》也不能称之为翻译文学。

中韩“二十四孝”的相异点,首先表现在形式上。形式上最大的不同是二十四孝的故事在图象叙事上的表现。中国的“二十四孝”在一个画面里表现出最经典的叙事情节,但韩国《三纲行实图》的“二十四孝”以三、五个画面甚至八个画面分别详细地表现出故事的细节,从而说明具体叙事情节。这样的图象叙事比语言叙事更容易让人理解和感动。所以更能达到宣传孝的效果,也能给人们留下更为深刻的印象。内容上,《三纲行实图》是以中国的原文为基础,细节上改编了一些叙事情节,同时也添加了一些本国故事,内容上更推崇孝的伦理道德,更强调孝的实践。

通过对中国《二十四孝》和《三纲行实图》中“孝”图象的敘事比较研究,发现《三纲行实图》把传入韩国的概念性的“二十四孝”通过图像来叙事,更容易被大众所理解,其表现的“孝道伦理道德”更加贴近现实,更容易被人们所接受。但目前为止,韩日间“二十四孝”的特征还不明确,需要进一步深入研究。

關鍵詞 : 孝, 二十四孝, 孝行录, 三綱行實圖, 圖象敘事

이 논문은 2015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